



[정규과정]문화계 거장들의 이야기

주제 : 요즘 가장 잘나가는 웹툰작가 이야기 - 주호민



최근 한 유력 매체의 기사 제목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웹툰 작가 연봉 2억 넘어” 내용인 즉, 모 포털사이트의 연재 작가 300명의
연평균 수익이 2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료를 포함해 미리보기, 완결보기 등 다양한 유료 수익과
영화, 드라마, 게임 판권 수익 등을 합산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신인작가도 평균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웹툰 작가 전성시대다.
예능프로에 방송인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인기 스타강사가 되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자로서 이름을 올린다.
당연히 진로를 고민하는 10대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최근 중고등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ढ고 싶은 롤모델 15인에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의 원작자 주호민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주호민은 절제된 연출로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작가로 정평이 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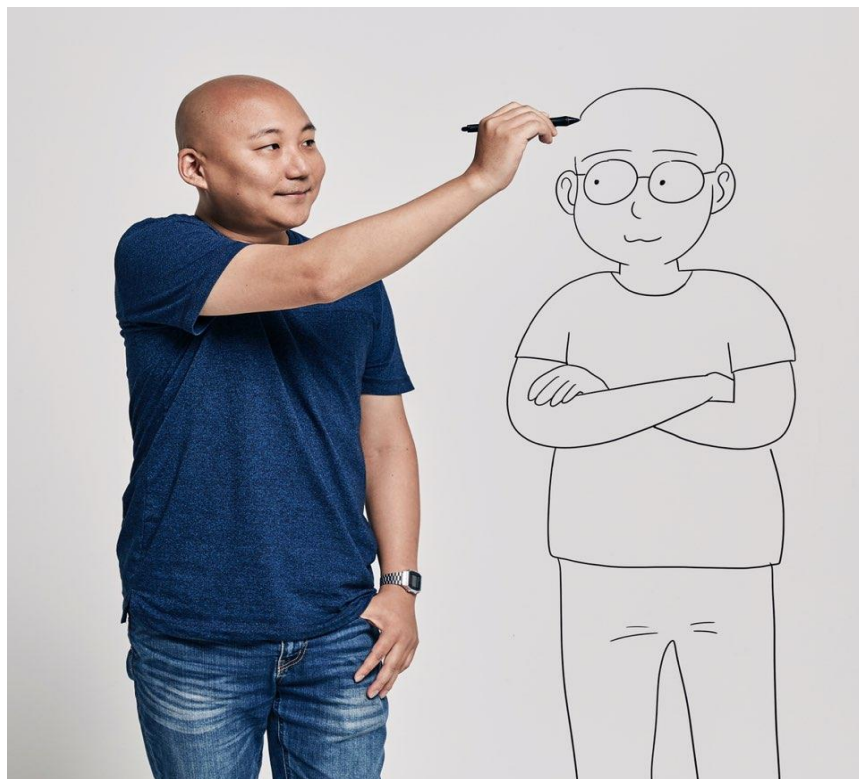
유행 코드를 쓰지 않으면서도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유머센스가 있다는 평가다.

그의 작품으로는 〈신과 함께〉, 〈무한동력〉, 〈짬〉 등이 있는데,
한국의 전통 신들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다룬 오니버스 형식의 만화인 〈신과 함께〉는
2010년~2012년에 네이버에 연재된 이래 단행본 출간,
일본판 리메이크(2012) 라디오 드라마(2013), 뮤지컬(2015), 게임(2017)으로 제작되며
원작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고,
2017년 영화로 제작된 〈신과함께-죄와 벌〉이 관객 1400만 동원,
2018년 〈신과함께-인과 연〉이 1200만을 각각 기록하며
웹툰 원작 영화의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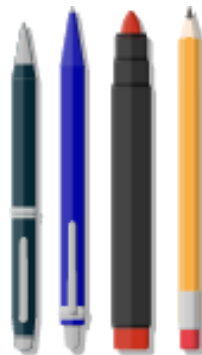
이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웹툰이자,
가장 성공한 OSMU 사례이다.





주호민의 아버지는 가난한 민중미술 화가이고,
어머니는 미술교사, 외삼촌은 미술평론가였다.
얼핏 보면 미술가 집안으로 만화가가 될 환경을 갖추고 태어난 것 같지만
정작 그는 어린 시절 미술과 전혀 가깝지 않았다고 한다.
단순히 만화를 좋아했을 뿐이고 부모님이 그림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의 그림체를 보면 사실 미술 전공자에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
물론 특유의 허술하고 단순한 그림체가 그만의 ‘시그니처’가 되었지만..

그를 성공한 만화가로 이끈 동력은 청춘기의 실패와 좌절이었다.
대학입시 가, 나, 다군 모두 불합격. 전문대에도 불합격. 재수도 실패.
사회로의 첫 관문에서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이면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공감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직업학교를 진학하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곳으로
배우는 수준이 기대보다 너무 낮아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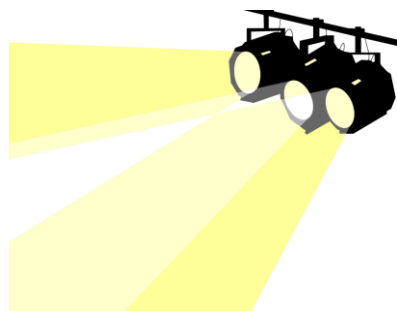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고,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려 했더니
심지어 과가 없어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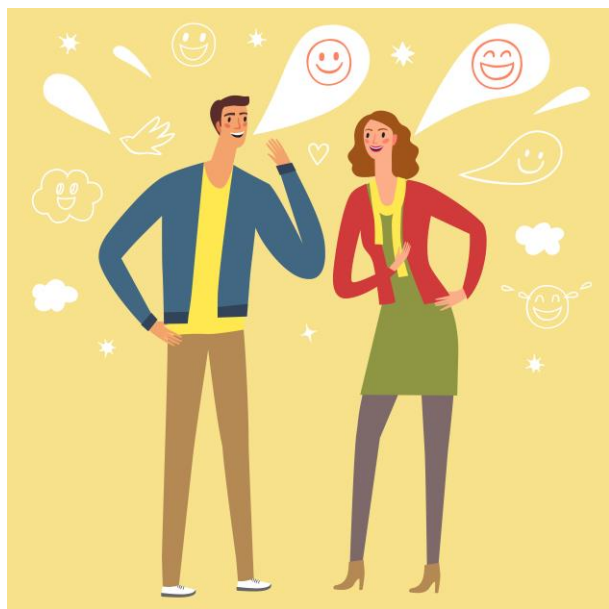
이후 백수로 지내면서,
습작으로 그린 만화를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포털 사이트 관계자가 연락이 와서
만화를 연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군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재로 <군대짬>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한 출판사가 출간 제의를 하면서 완성도 있는 만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가 처음 만화로 돈을 번 것은 2007년때 부터다.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를 하면서
월 100만 원 수준의 원고료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만화 <무한동력>등
3개의 만화를 동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고
만화로도 먹고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진정한 직업인으로서의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무한동력〉 연재 당시에는 독자층이 좁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명의 생계형 작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네이버에서 연재한 〈신과 함께〉 3부작이 완결된 후
입소문을 타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유명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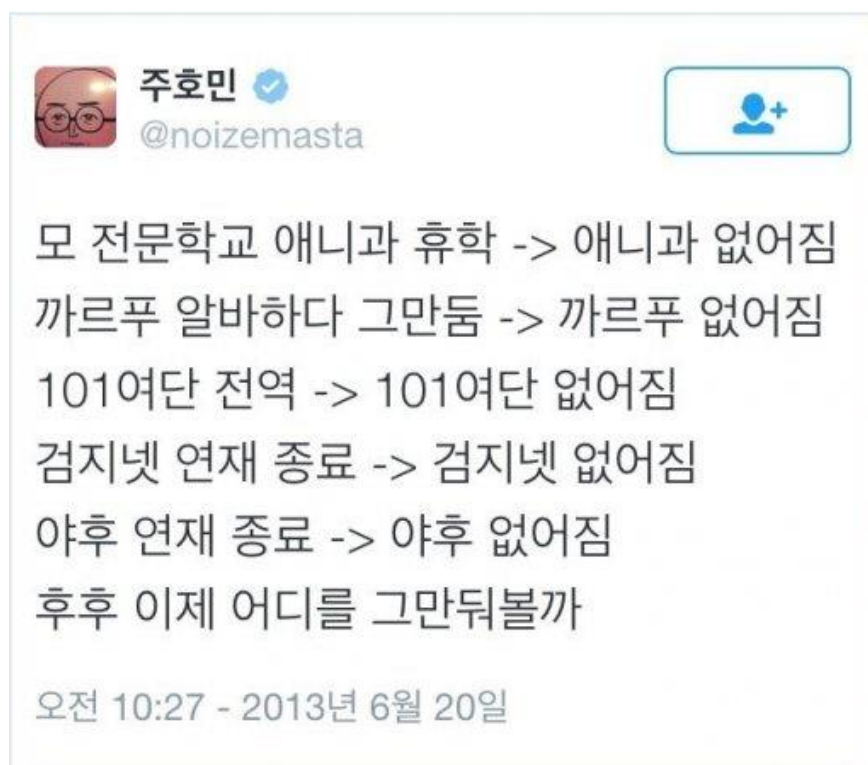


그의 만화는 고달픈 미생들의 힐링 만화라는 수식이 따른다.
그가 그린 만화 주인공들은 모두 큰 특징이나 개성이 없는 백지 캐릭터들이다.
이런 마이너 한 정서의 주인공을 다루는 이유는
굳이 힐링의 흐름을 좇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쓸쓸한 청춘 방향기를 겪으며 느낀 정서를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이 평범한 삶을 사는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은 비결인 것이다.



〈짬〉은 현역병들에게
〈무한동력〉은 평범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신과 함께〉는 권선징악을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한국인 정서 적중했다.

주호민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이 있다.
바로 ‘파괴 왕’이다.
2013년 어느 날 그가 트위터에 올린 이야기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이후, 그의 ‘파괴 전력’은 네티즌들의 하나의 놀이요소처럼 사용되며,
파괴가 필요한 곳(?)이라면 소환되는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는 망하는 곳에서 같이 망한 것이 아닌,
망하기 전마다 번번이 탈출한 행운아인지도 모른다.
‘파괴왕’이 아닌 ‘생존왕’이 되어야 옳다.

주호민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꿈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인생의 나락에 빠져도 꿈이 있으면 살만하기에
하찮은 꿈이라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탈출왕 주호민의 만화가 미생들의 고달픈 일상에 즐거운 탈출구가 되기를 바라본다.



참고 :

- 나무위키 - 주호민 (<https://namu.wiki/w/%EC%A3%BC%ED%98%B8%EB%AF%BC>)
- 표표스스 인터뷰 (<https://ppss.kr/archives/24829>)